

예산안 날치기 처리



정의화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1년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려 하자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몸을 던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욕설·몸싸움·주먹질... 아수라장

물리적 충돌 '난장판 국회'... 어김없는 연례행사

올해도 '예산안 충돌'이 되풀이되면서 난장판 국회는 재연됐다.

국회는 올해까지 8년 연속 법정 시간(12월2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3년 연속 여당 단독 처리 및 예결위 의결 10분 이내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이 과정에서 3년 연속으로 본회의장과 본회의장 앞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전날부터 시작된 여야 충돌은 8일에도 이어져 오후 내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집단 몸싸움이 벌어졌다.

오후 1시45분께 한나라당 당직자·의원보좌진 및 경위 200여명이 중앙홀에 들어서자 민주당 측 100~150명은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현관문 앞에서 검거기 스크럼을 쳤다.

한나라당 측이 의원을 둘러싼 상태로 한 덩어리로 문쳐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충돌, 중앙홀은 순식간 고함·욕설·비명·함성이 뒤얽히는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이 과정에서 수명의 의원과 보좌진이 다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 김성희 의원이 주먹으로 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충돌을 통해 한나라당은 오후 3시30분께까지 의결정족수를 넘는 160여명의 의원을 본회의장으로 진입시켰다.

거친 몸싸움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현관문 앞 중앙홀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이인영, 김영춘 최고위원, 차영 대변인이 나란히 눈을 감은 채 가 부좌를 틀고 중앙홀 바닥에 앉아 무언의 시위를 벌였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민주당 보좌진에 막혀 두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의 권유로 사퇴를 선언했다.

오후 4시15분께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50여명의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김무성 원내대표가 단상 아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다 나와"라고 말하자 등 20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앞으로 물러나갔다. 이들은 곧바로 단상으로 올라가 3~4명에 1명씩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렸다.

물리력으로 의정석을 탈환한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후 4시44분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으며 이어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했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의정석에서

래 의원 통로에서 무선 마이크를 잡고 제안설명을 했고, 제안설명이 끝나자 정 부의장은 먼저 새해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고 이어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도 통과시켰는데 이에 소요된 시간은 5분에 불과했다.

정 부의장은 나아가 "앞으로 상정하는 법안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달라"며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유엔(UN)아이티 안정화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유엔(UN)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동의안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 야당이 반대하는 주요 안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졸속·부실심사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전 11시 회의장소를 변경하며 단독으로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3분 만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과 지난해에도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데 7분과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18대 국회 들어 3년 연속 정부와 한나라당이 협의해 만든 예산안이 통과된 것도 문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亞문화펀드 40억·F1 168억 날아갔다

누락·삭감된 광주·전남 현안예산

■ 광주전남 2011 주요현안 누락·삭감 사업비

(단위:억)

사업명	정부안	상임위안	확정예산	증감
아시아문화사업투자펀드	10억	50억	10억	-40억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2억	4억	2억	-2억
클린디젤자동차부품단지	40억	50억	40억	-10억
하이테크물도허브구축	10억	15억	10억	-5억
적외선과핵융합기술개발 산업화지원	10억	15억	10억	-5억
국립광주과학관건립	221억	356억	221억	-135억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0	운영비 60억 추가금사비 308억	운영비 200억	
전주-광양 고속도로	2159억	2411억	2195억	-216억
목포-광양 고속도로	2305억	3105억	2305억	-800억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2000억	3000억	2500억	-500억

SOC 사업비 누락... 박람회 차질 불가피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마감을 하루 앞둔 8일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임위를 통해 증액하거나 새로 반영하려던 현안사업비가 대폭 삭감 또는 누락돼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지역의 경우 북구 오희동에 국비와 시비 등 945억원을 들여 건립하고 있는 국립광주과학관은 당초 정부안인 국비 221억원 외에 상임위에서 추가로 135억원 증액에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의 예산 단독 처리로 사업비 증액이 무산됐다.

또, 광주지역 문화산업체에 시설·운영자금을 저리보 융자해주기 위한 아시아문화사업투자펀드 조성사업비도 40억원 증액이 무산되고 10억원만 반영,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비는 상임위에서 2억원 증액이 합의됐지만 무산됐으며, 광산구 진곡산단에 조성되는 클린디젤자동차 부

품단지 조성사업도 당초 정부안 40억원에 10억원을 증액하려던 시도가 물거품이 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이번엔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광주연구개발(R&D)특구 육성 15억원, 광주야구장 건립 100억원을 비롯 2015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 지원 40억원, 광주교도소집입도로 개설 30억원, 전남대 동아시아교육센터 건립 20억원, CGI제작환경구축 10억원 등 모두 13건에 297억원이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전남도의 경우 F1 경주장 추가 공사비 및 운영비로 상임위원회에서 확보했던 368억원이 200억원으로 삭감됐다. 그나마 예초 상임위에서 확보했던 추가 공사비(308억원)의 경우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60억원 확보하는데 그쳤던 대회 운영비만 200억원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전남도가 예초 경주장 건설비에 대한 국비 미확보분 312억원을 올해 추경안에 편성, 도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으로 도민 형세 추

가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예산도 애초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요구했던 증액안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남도는 특히 ▲전주~광양 고속도로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여수시 버스터미널~박람회장간 도로 확장 등을 최우선 사업으로 판단, 예산 확보에 나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 예결위로 넘겼지만 여수산단진입도로만 500억원 증액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장 2012년 5월부터 처리되는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광주시의 경우 해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남도에서는 신규사업(2264억원), 계속사업(638631억원) 등 모두 7조895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6조4346억원에 견줘 10.2%(6549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경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지원-김무성 잘되거나 했더니...

청와대 강경 입장에 '합의 통과' 무산

청와대만 있고 정치는 없는 한국 정치권 현실이 민의의 정당 국회를 뒤흔기며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18대 국회는 2008년 연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과정에서는 국회에 전기통과 해머, 소화기가 등장하는 등 사상 초유의 파궤으로 향후 계속될 '난장판 국회'의 신호탄을 쏘았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과 4대강 예산안 처리를 놓고 본회의장과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민주당은 회의장 점거농성으로,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를 일관했고 그때마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김형오 전 의장은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질서'를 유지했다. 특히 7월에는 미디어법을 놓고 여야가 동시에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혼

이 벌어지다가 하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까지 더해지며 여야간 다툼은 헌법재판소 예까지 가게 됐다.

2010년 18대 후반이 들어 새로 출범한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하나같이 '대화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국회 정

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이마저 결국 무시됐다. 이번 연말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할 때도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듯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오는 15일 합의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구체적 예상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예견에는 김무성 원내대표의 유연한 태도와 함께 '(4대강 예산)

전부를 내주느니 한푼이라도 쥐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실용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청와대의 강경한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7일 오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중점법안인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8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무리한 예산 내용을 그대로 시한 내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자꾸 여당에 압력을 가하고, 여당은 무조건 따라가다 일이 더 나빠지는 수가 있다"며 "여기에 청와대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하나투어

예약문의
062-224-0022

광주 무안직항기로 떠나신나날 여행

전일빌딩 1층 투어뱅크

구.도청

금남로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1 한국은행협회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파워 1위

BRAND STAR

브랜드스톡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스타 1위

KS-SQI

한국표준협회선정 (2007~2008)
2년연속 KS-SQI 서비스품질지수 1위

마카오 | 홍콩 | 심천

요금 899,000원~

★출발날짜: 12월 23일~2월 3일(매주 목, 일 출발)

★특전

- 광주-무안공항간 왕복 셔틀버스 운행
- 빅토리아 피크트립 탑승(편도)
- 심천 관광(심천민속촌, 동양 각 나라의 민속적, 몽골리안 마상쇼, 소인국, 환상적인 민속쇼)
- 마카오 관광(관음당, 세나도광장, 성바울 성당, 마카오 역사 유적지, 포르투갈 석식), 마카오 카지노관광
- 함흥 더 업그레이드 된 양차식과 한식
- 수험생들 10만원 할인 (12월 26일 날짜 한정)

상해 | 장가계 | 항주 | 소주 6일

요금 899,000원~

★출발날짜: 12월 18일(5박 6일)

★특전

- 상해/장가계/소주/항주를 한번에
- 세계 최장 길이 천문산 케이블카 포함
-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주는 발맛사지
- 천자산케이블카, 원가계 백룡엘리베이터, 심리화랑, 분노 레일 왕복
- 소주-한산사, 운허유림선
- 항주-성황각, 천하방앗거리, 서호 습지공원
- 상해-임시정부청사, 홍구공원, 남경로 서커스

일본 부관헤리 3박 4일

- 아소팜 특급호텔 숙박

요금 439,000원~

★출발날짜: 매일출발

★광주역 출발

★특전

- 특급 아소팜 빌리지 온천 호텔 숙박
- 아소팜 빌리지에서 70가지 메뉴의 웰드뷔페 레스토랑 석식 제공
- 갯부 기미도 지역온천 스페셜 유모하나 관광
- 일본의 아기자기함을 느낄 수 있는 유후인 긴린코 호수관광
- 세계 최대급 클래식산악 아스산 관광

배타고떠나는 "크루즈 해맞이 축제"

요금 39,000원~

★출발날짜: 1월 1일 새벽 04시 출발

★출발장소: 광주역

★특전

- 해맞이 길놀이 및 타악공연
- 가훈써주기
- 시립교향단 및 합창단공연
- 매직컨서트
- 세계최대급 클래식산악 아스산 관광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광고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필수경비 포함 : 여행자보험(해의1억원/국내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안내원비용 ■ 선택경비: 개인적 선택에 따른 현지선택관광은 별도비용(일일표에 명시), 개별적인 팀 및 비자비용 별도 ■ 서울시 중로구 광명동 1번지(주) 하나투어 ■ 일반여행업 등록 377(서울) ■ 관광품질신고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5억 보증보험 가입(보험기간: 매년 2월 1일~다음해 1월 31일) ■ 최소 출발인원: 10명 ■ 숙소: 2급 호텔 이상 ■ 교통편: 항공/버스 ■ 상의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0남자는 오동분동임)